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진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통일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이다
(빌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장 사서목회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경관 편집인: 노경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3월 1일 금요일집회

3. 약속을 이루어 가심 (가나안 정복)

“네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노라”(수 1-11, 23-24장)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하늘로부터 내려 온 ‘만나’를 먹었으며, 솟아나는 물을 마시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지만 애굽 사람으로부터 얻은 보물로 우상을 만들고(출 32:3-9), 일용할 만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애굽의 양식을 그리워했으며(민 11:5-6),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는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세 불복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버림받았다(민 14:2-3). 현실을 무시나 잘 파악하여 안주하러던 그들의 태도는 결국 언약의 땅을 잃고 고달픈 현실에 대해 원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몸만 자유였을 뿐, 영혼은 여전히 백성의 땅인 애굽에 매여있는 노예였다. 그들은 몸만 애굽에서 나왔을 뿐, 영혼은 출애굽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하는 불평과 원망을 책망할 수 있는가? 이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조금 전의 은혜와 감동은 곧 과거가 되어 세상에 안주하지는 않는가? 그리고는 그들이 언약의 땅을 잊었듯 우리도 십자가를 잊고 그들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 거의 이르렀다. 이제 아주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모른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 아니 믿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관아에서 옷이 낡지 않고 신이 해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신 29:5),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의 길을 걷게 되어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출 16:13-15),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자기 의존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거친 원망만 쏟아놓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순종함으로 언약을 성취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자들이 있었다(수 8:33). 그들은 군대를 모집하고 전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나팔소리로 징병을 부르더라는 황당한 명령에 순종했다. 그러한 순종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그들이 지나온 혼란은 온통 불평과 불만족, 범죄와 부도덕뿐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언약의 증거들이 보여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며, 결국 가나안이 정복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완전한 순종의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 23:14).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기억하며 떠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확인시키고 결국 약속을 이루셨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한 가지 남아있다.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 그것이다. 즉, 모든 족속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성취해야 할 언약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신앙칼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배를 하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전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성도의 도리이며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양으로는 신령한 예배를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과 목숨을 통해 주님과 자신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 15분 전에 ‘예배 찬양’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시간이 아니고 15분 전에 나와서 찬양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통치하심을 묵상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평안과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일 양으로 바쁘게 달려 나가서 그 일에 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추하고자 하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습과 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매일 때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참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장으로 달려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전도와 선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모든 일들이 모두 이 신령한 예배의 기초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 온 위원과 실행위원,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모든 세상의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도 이러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알고 함께 맞추어 나아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즉 예배시간 15분 전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때 사적인 대화, 잡담을 두리던 거리를 신전해지시 않도록 물기없는 단정히 하는 일, 인내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앉는 일-특히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더욱 조심할 일, 가능하면 주일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일, 찬양예배 시간인 오후 5시 이후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거나 다른 모임을 갖는 일을 삼가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교회가 강하게될 뿐 아니라 각 개인들도 주 안에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자라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가하시기에 만족한 주의 성전으로 매일 매일 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영 식 (장로, 예배위원장)

*다음주 필자는 재정위원장 김경관 장로입니다.



신앙칼럼

은혜

보통은혜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말한다. 햇볕은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를 구분하지 않고 쬘이고 바람 역시 누구에게나 불다. 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없이 바뀌고 동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도덕과 질서를 정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효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보통은혜이다. 하나님은 보통은혜를 사용해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理性)을 사용하여 능력과 재능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능력과 재능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보통은혜는 창세기 1:28에 나타난 명령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특별은혜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며 어느 것도 간섭할 수 없다. 특별은혜의 역할은 죄의 허물과 타락을 제거하며 정죄된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은혜로 인해 백성의 교리와 구원의 역사와 사직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이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특별은혜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보통은혜는 죄를 제거하거나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큰 보통은혜도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보통은혜는 특별은혜가 사역하는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리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별은혜는 새로운 세상이 거듭난 인간에게 사역하며 보통은혜는 현재의 세상을 유지하고 특별은혜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영향을 준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보통은혜를 느끼는 것이다. 마스한 햇빛은 매우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아가 내가 선택받았음을 깨닫는다면 특별은혜 속에 들어온 것이다. 할렘루아!

안 창 복 (목사, 13교구 지도)

금요 구역공과를
위한 설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마 16: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영적인 무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분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이해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님이 걸으신 길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여 오히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험악한 길을 걸으며 줄은 줄은 들어가고 말았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을 걷고 큰문으로 들어가고도 합니다(마 7:13~14).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요정에 가장 먼저 실패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좁고 험악한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진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거룩 유다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반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한 순간의 실수였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실수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동일한 실수를 세 번씩 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께서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씩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마 16:21, 17:22~23, 20:17~20). 또한 겹새마태 동산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마 14:32~42).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무관심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 즉 세상의 것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참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며, 함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였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주님의 예고를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해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길

마태복 16:21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 너무나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로 미치지 아니하리나니”(마 16:22).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된 반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5).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려면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전제로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있을 것이요, 자신을 부인할 때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낫추는 일

또한 예수께서는 마태복 17:22~23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갈릴래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은 또 다시 침울함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리라”(마 17:23b). 그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 18:1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그 때에 제자

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도 스승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때문에 근심에 빠져있었는데, 금방 권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승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예수께서 죽게 되면 자신들이 얻으려는 목적이 도망치기 못하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로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인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2~4).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이르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리고 겸손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다른 이들을 섬기는 길

그리고 마태복 20:17~19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한 것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평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니 때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이름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하신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노라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명하시라”(마 20:20~21).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권위에 대한 욕심이 이제야 어마어까지 거세해져 만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세베대의 아들(그들의 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만 했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나 내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알을 것이니라”(마 20:22~23).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5~28). 총련의 성령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날 주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주께서 예고하신 죽음과 부활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마 16:24). 어린아인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마 18:4).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마 20:27).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영원한 죄의 행방을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인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낮출 줄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섬기려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벧전 3:15)

2002년도 전반기 주간성경공부 개강

2002년도 전반기 주간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약 15주 동안 진행되는 주간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충현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직 신성하지 못한 성도들은 조속히 신성하시기를 바란다.

로마서 (여성지 목사, 주일 09:00~10:20, 제2교육관 3층)

바울이 쓴 로마서만큼 기독교 교회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책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종교개혁의 기수가 된 것도 로마서의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존 번연, 존 웨슬리 등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도 로마서의 가르침에 의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아무리 읽어도 다 읽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마음에 들고 더욱 새로운 맛을 품어준다”.

적확하고 명쾌하게 해설된 본 로마서 강해를 들은 독자들은 루터의 이같은 평가를 더 한층 실감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성록 목사, 수요일 12:40~14:00, 교육관 503호)

에베리아서는 바벨론 포로 이전 국운이 기울어 질 때에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어진 죄와 불순종에 대한 회개와 책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의 결과로 심방과 낙심에 빠져 있는 팔레스틴 땅 주위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서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이 격제되는 비참한 현실을 접하게 될 것이며, 불순종한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안철명 목사, 수요일 12:40~14:00, 교육관 504호)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마저도 죽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나타난 적나라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죄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병행됨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의 종류들과 그것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대결이 커다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죄들을 다루시는가? 그런 죄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영적 진리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보십시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정진호 목사, 수요일 12:40~14:00, 교육관 506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선언과 함께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사역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조롱과 고통을 감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행을 집행했던 배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역사적인 고백 가운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지와 정성을 거부하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며 그의 부르심에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유진 목사, 수요일 12:40~14:00, 교육관 301호)

야고보서는 ‘믿음의로만’ 죄인이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부정되는 것처럼 보이며,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한 내용도 찾기 힘들고, 또 주후200년

이후에 나타났기에 처음부터 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씩 해결해 가며,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배워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살아있는 참 믿음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로스웨이 2 (이종대 목사, 수요일 12:40~14:00, 베다니홀)

성경 메시지의 중앙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지점입니다. 이 십자가는 비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부분적 사역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에서 조금, 예언서에서 조금, 복음서와 몇몇 서신에서 조금씩 뜬어 모아 놓고 성경의 전부를 취급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보다 덜 중요하고 2차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크로스웨이 2권 공부야 바로 이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김영문 목사, 목요일 9:30~10:50, 교육관 109호)

신명기서는 모세 5경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오늘날 신명기의 제목은 70인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두토모리몬’, 즉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7:18에서는 왕은 그가 왕 위에 오를 때 이 율법책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써서 평생을 옆에 두고 읽을 것과 그 명령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왕의 통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신명기의 제목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인 ‘드바라’ 즉 말씀들로 그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책은 모세가 쓴 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왕하 22장).

2002년 1학기 신명기 강좌에서는 전체적인 조망과 아울러 주요 구절들을 주해하면서 신명기의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christo-centric)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크로스웨이3 (류병희 목사, 목요일 11:10~12:30, 교육관 109호)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특히 3권인 신약을 공부한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역사 흐름을 깨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굽이굽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공부로 통하여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3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크로스웨이를 공부한다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신약 27권의 맥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서신 (고광현 목사, 목요일 19:30~21:00, 교육관 109호)

18세기 초 이베로 학자들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목회서신’이라는 명칭 아래 한 데 묶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교회의 책임적 직책 담당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회서신에서 자기의 친밀한 동역자 두 사람(디모데, 디도)에게 그들이 위임받은 회회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처리에 관한 물음들과 개인적 상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서신 공부를 통해서 바울의 목회에 대한 철학, 복음을 향한 열정, 교회공동체의 바른 모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되어서인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처음보다 지내기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얼마 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회심과 선교여행의 시작 장면을 읽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책에서 읽히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미한 저희들의 존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본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 새 생기고 물 건너 저 편에 있는 당시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본인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셨던 성경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 때문에 저희와 만민 모든 영혼들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열심 때문에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가를 치루신 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선배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녀희는 오늘날 태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수사에서 24장 14, 15절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마따라에 위치한 자밀 가정에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그리고 반다라에 있는 와이라네 집에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소영·최은아 선교사가 교회에 나갔던 것을 권유했던 자밀의 가족 중 자밀의 막내 여동생인 마유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최 선교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보다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니르말리와 감빌라, 크리스안이 있습니다. 니르말리는 주로 목역을 하는데 와이라네 집에 있을 때 어린이 세 명에게 어린이용 전도지를 통해 어린이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빌라와 크리스안은 각 가정에서 다시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서도록 도움을 주고자 저희와 함께 성경공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 선교사는 갈레에 있는 잔드너와(척추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빌라 누나와 그녀의 딸인 오서드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2주 정도 지나서 외선부 학생이 준 두 명의 편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주소만 가지고) 현지인 감빌라, 최 선교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편지를 그냥 우체통에 넣어두 되었던 편지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만나기 위해 버스를 여러 번 갈아 타고 물어 물어 집을 찾았습니다. 집을 간신히 찾았지만 정작 수신했은 만나보지 못했습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그날 따라 무척 더워 고생고생 했는데 말입니다. 이곳에게 편지를 달기고 돌아오는 저희들의 발걸음은 허탈했지만 길을 떠날 때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없지만, 때때로 영적인 묵마름으로 인한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생령수로 저희와 현지인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침은 기존의 사역을 충실히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국한 사람 중에 세례 받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놓고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일 대 일 양육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 년 후에 저희가 떠날 것을 대비해 현지인 양육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지도력 양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방법 스스로 마음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것 등을 가르치며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도력을 통해서 남아 있는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길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감빌라는 지금 3주째 성경공부를 하고 있지만 크리스안은 한국에 다시 가는 문제로 거의 집에 있지 않아서 성령으로 된 '새로운 삶' 이란 교재는 혼자서 성경공부를 하게 한 다음 니르말리와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니르말리는 선임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양육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며 기도하는 법, 말씀 읽는 법, 전도하는 법, 또한 아직은 이른 듯 싶지만 마음을 전하는 것 등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최 선교사와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이 나가며 지혜로움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수모드, 아디까리, 사가리 집 방문을 통해 성경에서 각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2. 자비 양육을 받는 니르말리, 감빌라, 크리스안들 각 가정의 영성성장하도록.
3. 온야 자매가 돌보고 있는 감빌라 누나, 오서드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도록.
4. 자와 온야 자매가 마음을 함하여 복음의 중심이 되도록.
5. 건강과 인어의 진보를 주시도록.

스리랑카에서 강기업 단기선교사

생명이 말하는 인간 ⑧

일반은총 속에 있는 인간

인간의 타락은 실로 사탄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켰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 기능을 잘못 행하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며, 영적으로 무능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결과 자기 중심적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이것을 미워하고 자연을 착취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상을 생각한다면 이 땅을 가리켜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인간의 악함과 부패성을 끊임없이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친절해 보이고 도울을 줄만해 보이며 사심없이 사는 듯한 좋은 이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천이 아닌 음악가들, 화가들, 시인들, 소설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와 인간의 사랑을 위해 행하기 때문에 '화려한 삶'(splendidi vitia)이라고 불렀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우에는 어거스틴의 생각과 같으면서도 전적으로 만족해 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부패를 깊이 인식하면서, 타락한 인간에게 발견되는 진리, 선함, 아름다움, 질서 요소들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인간은 그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인간에게서 죄성이 제거되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선함은 인간의 죄를 역제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믿음과 회개와 은혜로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구속의 은혜와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신학자들은 일반은총(common grace)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록 목사)

집중 CMT를 마치고

윤은진 (대학부)

중 1때, 해외선교단체를 통해 단기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다. 3일 동안 합숙하며 훈련받았고, 그 후에도 출발하는 날까지 몇 번씩 모여 준비를 하고 떠났었다. 벌써 6년이 지난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참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어려서 전도하거나 사역했던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기선교에 대해 잠시 잊고 지내다가 대학부에서 단기선교 신청을 받는다는 광고를 들고 거의 반사적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책이라도 자라서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듯 이번 집중훈련도 나에게 그러했다. 이를 동안 강의를 5개씩 듣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훈련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 여섯을 때 나가서 어떻게 선교를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만큼 나는 아직도 단기선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말 그만큼 이 훈련은 중요한 것이었다. '단기선교 가야지' 라고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나였다. 그것을 위해 돈·시간·노력·마음 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잊고 있었다. 내가 준비를 하는 만큼 단기선교가 더 큰 것이 되겠지 생각했다. 10개의 강의를 모두 성실히 들었던 건 아니다. 열심히 적으면서 들은 것도 있고 출석서 들은 것도 있다. '대 정선 차리고 들을걸...' 하는 후회도 있지만 내가 얻은 것도 많았다.

앞으로도 1박 2일짜리 언어훈련 등 많은 준비들이 남았다. 특히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는데, 정말 제대로 해야 할 영혼들이고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교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가도록 기꺼이 허락해주시는 엄마·아빠한테도, 신청하는 것을 도와준 팀장언니한테도 참 감사하다.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마음의 준비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기선교에 가게 하시는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하다. 현지 큰 일이 일어날것만 같은 단기선교가 정말 기대된다.

새 학기를 주님과 함께

이 종 필 (교도사, 대학부 부지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두 새로운 계획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봄과 함께 시작되는 학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 노트도 장만하고 책도 사셨지요. 모든 일들이 다소 들뜬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렇게 새로이 시작하다 보면, 자칫 의욕이 앞서고 욕심이 생기게 되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새로운 것을 따라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새로운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과의 교제를 계속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주님과과의 교제에 실패한다면 학기를 마칠 무렵에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새로운 삶의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과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이 끝날 무렵에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물어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 주님과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리고, 바쁜수록 예배에 더욱 성실히 참여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다

김은 심 (권사, 대학부 부감)

높은 창고를 나르는 기체에서 지상에 움직이는 물체들을 내려다본다. 집과 수많은 자동차들은 상강압 같은 물체들로, 당당하게 지상을 활보하는 사람들은 2차원밖에 안 되는 하나의 선과 같은 모양으로 더 높이 올라가면 점으로, 그 다음엔 티끌같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 땅의 사물은 모두가 이런 존재들이다. 나 역시 이런 존재이다. 복음은 이런 나의 껍질을 양과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 갔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마치 껍질을 벗기니 탐욕·위선·명예·자아 등의 속내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감이라는 미명아래 예수님을 세상적인 것들(물질, 건강, 자녀 등)을 넓혀 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의 영혼 가장 깊은 중심, 예수님의 자리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슬래기통 같은 탐욕이 자리잡고 있었다. 얼마나 멀리멀리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인지.....

"나 주를 버렸다 이제 읊이다", 세상에서 갓 돌아온 초신자 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자에게 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이 찬송의 주인공이 바로 나일 줄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적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것의 지경 넓히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런 내 속마음을 감찰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지 깨닫게 되었다. "허물의 사람과 언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죄를 수습 받는 기쁨!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비록 사단이 나의 육적인 번창을 끊임없는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나의 절대적인 삶의 가치관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끝까지 이끌어주시길 주님을 바라보며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위주 예수" 내 영혼 가득히 이 소원의 완수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은총의 자녀로 삼아주시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저를 위한 일입니까?

김진 희 (대학부)

21살, 대학교 2학년, 모태신앙.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왔었다. 뛰어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못지 않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대학부에서 와서 나의 그런 생각은 깨져버렸다. 전도사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고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가장 큰 혼란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져 나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셨다. 군정들의 침을 받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채찍 맞은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갇히셨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나? 왜 그 모든 것을 주셨나?

답은 하나뿐이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맛있는 일은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뿐 아니라 포도주 적신 해운, 죄책,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 달린 두 강도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었다. 내가 세상에서 겪었고 겪게 될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겪으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사랑하는 날 위해 준비된 일이었다. 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릎꿇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귀한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며 더 작아질 뿐이었다.

물론,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게 가져오신 것을 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생각한다. 한 가지를 기억하며.....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다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새로 예수님을 알아가려

교회를 다닌 적이 없던 저는 친구의 전도로 이

번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가 3박4일이라는 재미없고 지

루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3박4일이 어찌

나입니다. 수련회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

는 노력조차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수련회에 다녀와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변화한 것

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것이 누군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지 고백에 나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박민국 (대학부 새가족)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오래만에 하나님과 대

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곳 출원교회에 다니면서 나를 부르시면서 그

토를 내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도전받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했었

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니다. 특히 '기쁘게

이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제목이 되었습니다. 잘 살지도 못하는 형제·지배

를 이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요 또 그 기도로 인해 내마음이 열려 수련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깊게 느껴집니다.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련회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있을 내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영국 (대학부 새가족)



[한국 교회사]

기독교의 수용

기독교의 한국전래는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처럼 기독교가 우리 나라의 사회, 교육, 의료 등 사학 여러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우리 나라의 민족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점에서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의 기여와 공헌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외래문화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한국사회에서 급속도로 수용되어 갔다. 이것은 전적으로 복음자체가 지닌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당시 우리 나라의 역사 현실도 크게 작용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국은 정치적으로 시련 가운데 있었다. 일본의 계속된 침략야욕, 러시아의 남하정책, 그리고 중국의 간섭은 우리 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은 기독교를 통해 민족적 자각을 이루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서구문화의 도관인 기독교를 통해 국제적 시련 가운데 있는 조선을 구출해 보려고 하였다. 당시 선교사들은 단순히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과 의료사업도 병행하였다. 교육과 의료사업은 간접적인 선교방법이었다.

이 당시 조선은 서구문화와 서양예술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기독교는 문화와 과학적 이기들을 통해 조선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수용되어갔다. 조선의 선각자들은 기독교로부터 조선의 개화, 더 나아가서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정중하는 일제의 침략야욕으로부터 조선을 구출하는 힘을 기대했다. 그래서 기독교(개신교)는 이 땅에 널리 수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말의 선각자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 신자였던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기독교의 수용과 성장에는 다른 요인들도 크게 작용했다. 기독교가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 외에, 선교사들의 복음적인 신학과 선교방법, 한국인의 종교적 열심, 한국인의 심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의료 사업과 교육사업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청송에 복음의 빛을

이준 일 (권사, 13교구)

교정 전도회라 하면 웬지 거북감이 오고, 뭔가 큰 작위를 해야만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교정 전도회에는 봉사자가 별로 없다.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 그러나 교정 전도회는 그리 어렵지도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보람은 크다.

교정 전도회의 가장 좋은 점은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복음전파를 시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전해도 자신들의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정 전도회는 교도소 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주 쉽게 복음들을 사람을 접할 수 있으며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작은 청찰에도 쉽게 감동하며 빨리 변화된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수감자가 몇 있다. 그 중에 교도소 내에서 지위를 하는 한 수감자는 "예배때 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여 주시는데 생색이 아주 아름답게 빛났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은 교도소 내의 동료들에게 전해주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회개했다"라고 고백했다. 또 한 수감자는 말씀을 보다가 "글쎄 태양이 이보다 더 밝았어요. 아침이 이보다 더 맑았어요. 정숙, 황우이 이보다 더 귀하해요. 주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라고 글을 썼다. 이 외에도 음악했던 많은 죄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불로 신자였던 수감자가 주님의 품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외롭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만 믿는 척하다가 출감하면 다시 범죄 속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출감하고서도 잊지 않고 찾아온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다. 처음엔 대부분 반항적인 눈빛이다. '이 노인네가 뭘 바라고 여걸 오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가지다보면 '언제라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일이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은 깨닫는 것이다. '아!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진짜니까 이들이 계속 오기 때문이다.

나도 교정 전도회를 시작하면서 생활에 활기를 갖게 되었다. 사람에게서 영성을 얻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교정 전도회를 계속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교정 전도회에 봉사하게 되길 기도한다.

간증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며

곽 종 선 (새가족부 양육12반)

저는 중현교회 새가족부에서 신앙에 대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학생이고 아홉살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주님 날 몇 번 교회에 가본 것이 추억의 단편으로만 떠오릅니다. 그 동안 세상을 살면서 마음도 내키지 않고 여건도 맞지 않다가 이제 제 팔째로 교회에 나가서 지니 십수 년의 세월이 있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 고마움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에야 문득,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아직도 주님께 날 잊지 않고 사랑하더라면 주님을 찾아 봐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작정 교회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꼭스러워서 혼자 슬그머니 다녀가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회에 나온 그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부에 등록하고 신생활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생님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한 주라도 듣지 않으면 마음이 갑갑해졌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오묘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말씀을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나 할 줄 알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때와 같은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음이나 제사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답답하고 용이리진 매듭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쉽게 풀어진다 것을, 나는 죄인이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동안에도 주님께는 늘 기적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어느 때부터인지 성경말씀, 찬송, 기도하게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친으로 아사를 해서 주일이면 남편과 함께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가게 문을 닫고 갈지라도 남편 손잡고 새가족부에 들어서면 세상 사람은 사라지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영혼도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부모와 같은 인자함으로 돌보아 주신 권사님, 선생님, 아나들이 쉽게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양요설

5교구 한경자(여62세) 혈소판 감소증(피가 마르는 병)으로 수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지 않을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최수영(남57세)** 암 제거 재수술 후 자가 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6교구 안연숙 성도(남74세) 뇌출혈으로 입원 중입니다. 의식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3교구 이준일(여 70세) 손목인 검사 어머니. 심장 수술 후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과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김강한 성도(남73세) 당뇨 합병증으로 위독하여 입원 중입니다. 병의 치유와 믿음으로 평안한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변국경(남76세)** 간암으로 통풍이 심합니다. 통풍이 완화되고 간암으로 평안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승기 성도(남51세)** 홍채종 화제사건 당시 부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와 언어 장애로 치료 중 호전되어 대화 가능한 상태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양요설에 개종되었다가 다시 살리지 않은 환우들이 많습니.
성도를 믿어 얻는 환우들을 기쁘고 늘 함께 기도합니다.

다들 믿을 진심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데

이 행진 찬송가는 1864년에 영국의 배너인 버링그드(Berning-Baring-Gould, 1834~1924) 목사가 성경찬송 191주 및 찬양 100곡을 개행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구 행진을 위해 지은 것이다. 그는 군기와 십자가를 높이 든 어린이들이 부를 적당할 찬양이 생각나지 않으니 찬양집 본게 이 찬송가를 지었다.

- 1절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믿는 환수들과 싸워 승리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 후렴 환수들과 싸우는 여정을 시작하자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약속하다.
- 2절 승리의 진보에 사탄의 모든 도망치게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승리하여 나가고, 찬양의 외침 높이 지어주라. 찬양하는 소리가 천군 천왕의 찬양이다.
- 3절 세상 나라는 영원한 존속할 것임이 보이고 교회는 나락에서 곧 발할 것임이 보이나, 세상 나라는 존속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주의 종의 목을 매어바라보아 찬양을 할 양이다. 그 미쁨의 곳에 반드시 교회와 교회 여러 지평으로 그 불꽃이 튀어 번져나간다.
- 4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에 합세하는는 초창이다. '복성들이 우리 모두 함께 나가지. 우리 모두, 그 산을 부지저 영영 찬양. 찬양. 찬양을 그리스도께 돌리리라. 우리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지'.

한 마디에 4분음표로 이루어진 곳은 첫번째와 셋번째에 엑센트를 주어 행진할 때의 느낌을 가지고 부른다. 후렴에서는 처음에 작게 시작하여 네번째 절점 크게 하여 '같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를 더욱 크게 강조한다. 대창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의 군사들은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발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리의 확산과 감격을 가지고 힘차게 부른다. (찬양위원회)

진리 9반의 신앙고백



사사기 15:9-20절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삽니다. 나실인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닌 삼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볼게 됩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자나,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 할 우리가, 삼손과 같이 자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만을 위하여 살고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대적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영광 부어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6,19절). 삼손의 그릇된 의도와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이 모두 주님의 뜻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반공부 시간에 아이들과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우재림

나는 오늘 말씀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 구원과 나의 형제 함께 하심으로 돕습니다. (7:15) 제후가 회회 에 잘 나가기게 해주세요 2.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해주세요 3. 제가 동생과 사촌에게 지내게 해주세요 4. 학교생활 잘 하게 해주세요 5.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교우기도

오늘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한 것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권 함익 (소년부 교사)

(7:15) 제후 1.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3. 하나님께 감사한 점을 회개하겠습니다

교우수면

15절 어떻게 나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15) 제후 1.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2.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3. 우리에게 지혜, 충성, 열의 주시고 4. 언제나 저를 보호해주시고 5.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아와 아버지의 사마가 좋아지도록 도와주세요 7. 구미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우수찬

삼손이 자주 죄를 짓게 되어 안타깝다. 하나님의 사사로 마귀가 교살 수 있는데, 나도 마귀의 피해에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사자들의 삶을 본받고 싶다. 15절 삼손이 나귀처럼 1000명을 죽였다는 게 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았다. (7:15) 제후 1. 하나님 나같은 사람도 쓰셔서 은혜를 끼치고 싶습니 다 2. 에베를 믿음을 받고 싶습니 다 3.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 다 4. 새해에는 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 다 5.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 다 6. 사사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 다

교우이행

15절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사람 일 천 명을 죽였다. 삼손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해야겠다. (7:15) 제후 1.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2. 다들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3. 다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부모님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5. 교회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교우이행

오늘은 온전한 말씀은 사사기 15장 15절이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삼손이 블레셋 일 천 명을 죽였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알았다. 기도제목 (1. 알몸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2. 교회에 매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3.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4. 제가 하나님 믿음을 많이 알게 해주세요 5. 매번이기에 내 생각 잘 하게 해주세요)

교우기도

15절 어떻게 나귀를 가지고 일 천 명을 죽일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이행

18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하나님,
겨울성경학교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조 우 빈 (유년부)



늘 참석하던 성경학교 첫째 날, 아파서 가지 못했어요. 전날 밤 잠이 깊게 잠들어서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다녀와 집에 누워 있으면서,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친구들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즐거운 게임도 할 텐데, 성경학교 시작할 때병이 난 것이, 성경학교 폐회때에 대표기도를 해야하는데 그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도 둘째 날은 조금 나아져 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몸이 더 많이 아파다 할지라도 둘째 날은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강도사에게서 아픈 날 위해 기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찬양과 율동, 믿음을 지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열혈과, 아나나 게임 등이 끝나고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는 폐회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성경학교에서 대표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과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C a t e c h i s m

25. 교회의 권징 및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

(1) 교회의 권징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신 마르코 교회의 직할들에게 천국의 열쇠, 즉 치권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정권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할들은 자신들이 받은 치권권으로 범죄자를 면수 있고 풀어 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교정시켜 회개하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회개할 회회까지 인도하며, 온 교회에 퍼진 것으로 우려되는 누락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함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전부가 민주주의로 하기 위해 필요입니다. 교회 안에서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의 정경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의 온 그 조는 그의 정경에 반합니다. 권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할들은 먼저 당사자의 범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그 처사를 조절해야 하는데, 권제·권제·정제·면제·수한 정제(정한 정제), 출교 등으로 처리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은 온연한 양육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와 회생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주는 주시는데, 이 같은 모든 면양육을 위하여 자중하며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소망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자비를 베풀어줄 것을 권유하고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열의 하시는 성경개시는 그분의 온연으로 권유를 모든 사람에게 돌리도록 강권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권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의 의무로 특징(特長)입니다. 회개하여 믿고 계속 불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가증된 죄를 범하며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회개와 구원을 고집하는 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확립된 거룩한 복음은 정성으로 양육한 하나님의 말씀과 통용으로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이미 세운 신앙의 의식들을 유지할 의무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립시키는 대 공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 전도사·청년1부 부지도)

진리의 생

스바냐(Zephan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2)

또한 '스바냐'를 읽으실 때에는 상징적인 것을 고려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어떤 상징으로 나타내는지를 논여겨 보십시오. 또한 탐욕스런 통치자들에게 대한 묘사와 이적자들의 배설들에 대한 표현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스바냐'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본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는 1:2-3, 1:7, 2:2-4, 3:13,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는 1:18, 탐욕스런 자들에 대한 묘사는 3:3, 이적들은 배설에 대한 묘사는 1:17 등)이다.

그러나 정작 '스바냐'의 불같이 강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구원을 향하여 달을 절정한다. "구원받은 시온의 남은 자", "구속자의 남겨진 사람들에게 배설되어서는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이기에 대한 묘사는 1:17 등)이다. 구원을 주려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은 '내가 붙은 자의 딸' (3:10), '근고하고 거단한 배설' (3:12), '이스라엘의 남은 자' (3:13), '시온의 딸' (3:14), '너(3:15,17), '저는 자' (3:19), '꽃지나 자' (3:19), '온 세상에 사는 수목들은 자' (3:19) 등입니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3:17). ऐसा 나라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공판한 자들을 물리치고, 간악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은 죄인을 향하여 눈을 드시며, 언제나 죄인의 손을 잡으십니다.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